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EAI
동아시아연구원
2002-2012

EAI

동아시아연구원

본 연구원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확산·심화시키고 평화를 구현한다는 목적 아래 열린 사회의 구축·투명한 시장경제의 확립·동아시아 지식사회의 형성·동아시아 연구 및 출판활동과 정책연구에 전념한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정관 제2조

EAI

동아시아연구원

2002-2012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100-78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전화 02 2277 1683
팩스 02 2277 1684/1697
www.eai.or.kr
eai@eai.or.kr

이 사 장

이홍구

이 사

강은모 강찬수 공유식 김동건 김병표
김세원 김 준 김진현 민선식 박경수
박상용 박진원 박찬근 선승훈 신동원
여동찬 유창수 이숙종 임현진 장대환
조상호 하여선 홍석현

감 사

장동우

원 장

이숙종

센터소장

손 열 이내영 진재성 조동호 한석희

JEAS 편집주간

스토펜 해거드

연 구 원

김양규 김 정 김진아 김하정 스티븐 레인저
백혜영 서상민 신영환 안현정 양순화
오세정 이근수 정원칠 정한울 최은혜

10년을

돌아보다 Our First Ten Years



세계 속의 EAI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도 EAI의 열정만큼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열정이 더욱 뜨거워졌다고 해야겠습니다. EAI가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낸 성과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10년이 유난히도 요동쳤던 문명사적 전환기였다는 사실을 돌아켜 보면 그 성과의 의미는 남다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EAI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영국 BBC방송사가 주관하는 국제여론조사 컨소시엄에 한국 유일의 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미국 맥아더 재단 아시아안보 이니셔티브의 핵심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동북아 안보 연구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발표한 세계 싱크탱크 순위에서 아시아 지역 1,200개 정책연구기관 가운데 1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10년의 성과는 지구적 차원의 싱크탱크 네트워크 설립 과정에서도 EAI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스페인의 프리데 재단은 아고라 아시아-유럽 네트워크를 구축할 아시아 지역의 14개 대표적인 정책연구기관을 선정하면서 EAI를 한국 대표기관으로 초청했습니다. 미국 외교관계평의회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21개의 정책연구기관을 모아 발족하는 싱크탱크세계평의회 한국 대표기관으로 EAI를 지명했습니다.

개원식에서 EAI를 세계수준의 싱크탱크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지금 EAI는 세계 유수의 정책연구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싱크탱크로 성장하여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미래 한국의 자산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렇지만 EAI에게 개원 10주년은 '별써'가 아닌 '아직' 일 따름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EAI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EAI가 만들어갈 새로운 10년의 그 열정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사장 이흥구

다음 10년을 바라보며

EAI는 예산과 인력에 비교하여 큰 연구업적을 쌓으면서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내 거버넌스에 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증분석이 담긴 정책연구들을 해오면서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국가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연구물들로 정책기관, 학계, 시민사회에 기여했습니다. 국제적 네트워킹으로 한국의 공공외교 증대에도 기여했습니다.

EAI는 나라밖으로부터의 과감한 연구프로젝트 수주와 국내 후원자들의 정성 어린 지원을 통해 어렵게나마 재정적 자립을 해왔습니다. 독자적 연구와 독립적 재정으로 정부 부처나 대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 연구기관과 차별화되는 EAI 모델을 제시한 셈입니다. 오늘의 성공이 있기까지 EAI 지식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온 참여 학자와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식네트워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신 후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한 명으로 시작하여 열 다섯 명으로 늘어난 스텝 선생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들의 열정, 끊임없는 혁신, 성실함이 없었다면 오늘의 EAI는 없었을 것입니다. 연구, 행정, 프로그램 기획, 행사 등 각종 활동에서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은 EAI의 두 번째 도약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첫 10년의 발전된 모습보다 훨씬 성장한 모습으로 다음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의 발전이 멈추고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EAI 향후 10년의 성적표는 대한민국 싱크탱크의 새로운 모델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모델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더욱 발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EAI는 더욱 발전된 지식네트워크를 토대로 한국의,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굿 거버넌스를 창달하는 미션을 잘 수행할 것 입니다. 그러한 멋진 20주년을 꿈꾸며 '우리'는 서로 돕고 보태려 합니다. 그 '우리'는 대한민국 표 멋진 싱크탱크를 우뚝 세우려는 뜻을 같이 하는 연구자, 후원자, 행정 스텝, 연구물의 수요자인 정책담당자와 시민들입니다. 2022년, EAI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원장 이숙중

EAI의 꿈, 삶, 얹 그리고 함

열들을 축하합니다. EAI는 여러 후원자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4대 목표를 향해 지난 10년 동안 전력 질주해 왔습니다.

첫 목표는 단순한 싱크탱크가 아니라 드림탱크였습니다. 꿈은 원래 꾸민다는 뜻입니다. 21세기의 문명사적 변환을 맞이해서 새로운 질서를 꾸미기 위한 지구적 꿈의 각축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치열합니다. 제대로 된 꿈을 꾸는 나라와 개인만이 지구 무대의 주인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AI는 우리 사회의 새 꿈꾸기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냉전시기의 단순외교를 넘어서서 21세기 미중시대에 걸맞은 복합외교를 제시했습니다. 갈등과 긴장의 북한문제에 대한 21세기적 해법으로 공진전략을 내놓았습니다. EAI의 작은 꿈이 한국,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새롭게 꾸며나가는 데 핵심적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21세기 우리가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을 입체적으로 고민하는 싱크탱크였습니다. 미소 냉전시대에 이어 탈냉전의 미중시대가 찾아 왔으나 남북한은 여전히 냉전의 속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한국과 선군북한은 각기 다른 21세기의 당면과제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앞장서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10년을 매진해 왔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우리가 겪는 21세기 복합적 삶의 바로 알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격동기를 겪고 있는 한국은 구시대의 철학은 보수와 진보의 눈으로 새롭게 진보하는 현실을 읽어보려는 무리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AI는 새 시대를 단안(單眼)이 아닌 복안(複眼), 일진(一進)이 아닌 공진(共進)이라는 새로운 눈으로 올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단순히 생각하는 싱크탱크가 아니라 실천하는 싱크탱크였습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 삶을 제대로 품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노력은 최종적으로 실천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새롭게 마련하려는 국내의 지식무대에서 EAI는 새로운 스타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니다. 후원자 여러분들의 품속에서 몰라보게 큰 EAI의 지난 10년은 큰 뜻을 품고 거대하게 내디딘 우렁찬 첫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뜨거운 사랑 속에서 커갈 EAI의 100년은 당면한 4대 목표를 우리 사회의 선두주자로서 달성하는 야심찬 과정이 될 것입니다.

지구넷21 회장 하영선

싱크탱크의 성공조건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을지로로 향했습니다. 단 한 명의 스텝과 함께 소박한 등지를 틀었습니다. 2002년 늦봄의 어느 날, EAI는 그렇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조직이 그렇게 큰 꿈을 어떻게 펼칠 수 있을지 자문했습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냉철하게 따져보았습니다. 결국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꿈을 나누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했을 때 EAI의 길이 열렸습니다. EAI에 대해 제가 품고 있던 꿈은 저만의 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다음을 연구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만들어진 정책제언에 현장감을 불어 넣어줄 전문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정책제언을 시기적절하게 세상 속으로 전파할 언론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믿고 연구원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후원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EAI는 이렇게 아이디어의 힘을 확신한 EAI 공동체 모두의 노력으로 열린 길입니다.

그 길을 처음 걸어갈 때 보지 못했던 EAI가 지금은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로서 그 정체성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세계적 싱크탱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그 국제적 위상 또한 높아졌습니다. 공론장의 정책담론을 바꾸고 혁신적 연구의제를 개발하는 능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새롭고 객관적인 지식을 생산하여 오로지 공익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다짐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성과입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닦아 온 길 위에서 묵묵히 걸어 가고 있는 EAI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벌써 10년이 지나 갔고, 또 10년이 지나 갈 것입니다. 다시 앞을 바라보면 아직도 길은 멀기만 합니다. 쫓아 가야 했던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제 EAI 스스로가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벤치마킹하면 족했던 EAI는 이미 과거의 것입니다. EAI를 벤치마킹하려는 기관이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려면 남다른 책임감과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거창한 구호를 줄이고 작은 실천을 늘려야 합니다. 성공하는 싱크탱크는 더욱 겸허해져야 합니다. 결국 초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AI의 차별성은 모두가 알고 있는 진리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는 점에 있습니다. EAI가 앞으로 그 다짐을 잊지 않고 걸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EAI와 같은 꿈을 꾸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동참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도정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설립자 김병국



지구상에는 6,480개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1,200개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시아에서 12번째로 우수한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EAI
#12 Think Tank in Asia
The 2010 Global Go-To Think Tanks Rankings

영국 BBC방송사가 선택한 한국 유일의 월드 서비스 폴 참여기관입니다.
미국 맥아더재단이 선택한 한국 유일의 아시아안보 이니셔티브 핵심기관입니다.
스페인 프리데재단이 선택한 한국 유일의 아고라 아시아-유럽 네트워크 제휴기관입니다.
미국 외교관계평의회가 선택한 한국 유일의 싱크탱크세계평의회 창립기관입니다.

목
차

10년을 돌아보다
Our First Ten Years

이사장 메시지
원장 메시지
지구넷21 회장 메시지
설립자 메시지

변화에 맞춰, 제도를 설계하다
Designing Better Governance
08

세계를 보고, 전략을 짜다
Crafting Grand Strategy
12

민심을 읽고, 쟁점을 찾다
Analyzing Public Opinion
16

지혜를 나누고, 통찰을 얻다
Sharing Wisdom
20

사람을 키우고, 미래를 꿈꾸다
Nurturing the Future
24

희망을 듣고, 열정으로 답하다
Supporting EAI
28

EAI 커뮤니티
연혁
출판

변화에 맞춰, 제도를 설계하다 Designing Better Governance



2006년 9월 18일
인프라비전 포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EAI 연구패널

2005년 9월 9일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다양성 국제학술회의
데이비드 소스키스 옥스퍼드대 교수와 피터 구르비치
캘리포니아-샌디에고대 교수



2006년 10월 30일
인프라비전 포럼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와 EAI 연구패널

변화에 맞춰, 제도를 설계하다

EAI 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거버넌스는 권력의 문제를 회피하고서는 얻을 수 없다고. 그래서 권력을 직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순치(馴致)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았습니다. 제도의 변화로부터 해답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도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제도의 설계가 EAI 거버넌스 연구의 중심에 자리잡은 연유입니다.

대통령 권력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개혁논의는 권력의 핵심 대통령과 그 비서실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실패가 국민의 실패가 되고 국가의 실패가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또한 절박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대통령의 성공조건》(2002)입니다. 우선 학술연구자들과 정책결정자들 사이의 높은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의 소리가 담겨 있지 않은 학술적 담론은 공허하고, 학술적 담론으로 걸러내지 않은 현장의 소리는 맹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두 집단이 직접 만나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내놓은 살아 숨쉬는 개혁의 청사진이 태어났습니다. 그 반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참조하여 실제로 비서실 기구를 개편하였다고 자신의 자서전에서 밝힌 것처럼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권력의 개혁은 그 상대인 국회 권력의 개혁을 필요로 하고, 두 권력기관의 개혁은 보다 넓은 정치권 전반의 개혁을 시야에 넣어야 가능합니다. 《정치개혁의 성공조건》(2003), 《정치개혁과 국회개혁》(2003), 그리고 《국회의 성공조건》(2004)은 하나의 정책연구가 어떻게 또 다른 정책연구로 밀접하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파생된 연구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정치개혁은 결국 한 개인이 아니라 힘을 가진 세력이 정책형 정치인이 되어야만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큰 그림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회의 거버넌스 구조를 바꾸고 그 운영과정을 변화시키는 미시적 제도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2007)은 《대통령의 성공조건》으로부터 보다 직접적으로 파생된 연구결과입니다. 그 핵심에는 실패한 대통령직 인수가 실패한 국정운영을 낳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성공은 대통령직 인수 성공의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을 잘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아는 전략적 정

책전문가들이 인수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4년을 채 못 버티고 포말처럼 사라지는 우리나라 정당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의회민주주의가 잘 이뤄진다는 영국으로 고개를 돌려 파생된 연구결과가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2008)입니다. 과거의 가치, 질서, 이해관계를 지킨다는 보수 정파가 세월의 격변 속에서 어떻게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또 자신을 지지하도록 유권자를 설득해 낼 수 있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들여다 보았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대립 구도만으로는 한국 민주주의의 실험이 불러오는 새로운 변화를 포착할 수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2006)는 모든 정부의 업적은 성과로 평가 받는 것이고, 이러한 성과의 핵심은 지금 단계에서는 경제선진화라는 시각에서 한국정치를 진단합니다. 《분권헌법》(2007)은 청와대의 주인이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국정 운영은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라는 삼중의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세계화 제2막》(2010)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국제사회에 대한 관여와 기여를 높이려는 한국외교, 다원화되는 한국사회와 정치 등 제반 영역의 문제를 잘 아우르는 세계화의 밑그림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이처럼 경제선진화, 분권화, 세계화 등의 정책의제는 보수만을 위한 정책의제 혹은 진보만을 위한 정책의제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생산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의제를 중심으로 공론장의 담론구조가 다시 짜여야만 합니다. 《한국의 내셔널 어젠다》(2011)가 당리당략에 따른 쟁점이 지배하기 이전에 일찌감치 국민과 연구자, 전문가들이 내셔널 어젠다의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



2008년 2월 12일
소프트파워 현자회의
손열 일본연구센터 소장



2010년 12월 15일
제4회 한미동맹 컨퍼런스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 이숙중 EAI 원장,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 김선기 평택시장



세계를 보고, 전략을 짜다

Crafting Grand Strategy



2011년 10월 21일
제5회 한미동맹 컨퍼런스
김성한 외교통상부 장관



2009년 10월 28일
제17차 지구넷21 포럼
전재성 아시아안보연구원 소장



2006년 5월 23일
한미동맹 로드맵 컨퍼런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



2009년 11월 3일
제3회 한미동맹 컨퍼런스
캐슬린 스티븐슨 주한미국 대사

세계를 보고, 전략을 짜다

EAI 는 생각했습니다. 19세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21세기의 국가목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그래서 세계의 변화를 바라보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전략적 사고에 익숙해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전략적 사고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으면 문제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 또한 커지기 때문입니다. EAI 외교안보 연구가 국가대전략의 수립을 핵심 의제로 삼는 연유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부터 국가대전략 설계에 나섰습니다. 한국이 생존경쟁을 펼쳐야 할 21세기의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동시에 먼 과거로부터의 교훈과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을 일관된 분석틀로 통합하여 오늘의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2006)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복합 시간 축과 지구, 동아시아, 한반도, 국내라는 복합 공간 축 속에서 한국이 당면한 문제의 시공간적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유입니다. 복합적 성격의 세계는 복합적 성격의 연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EAI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체 패널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세기는 복합화를 위한 변환의 세기라는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의 결론을 자신의 취임사에 인용하고, 외교통상부 내부에 복합외교 연구모임을 정례화했습니다. 한국외교의 현장에 EAI의 정책연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동아시아 공동체》(2008)는 21세기 동아시아 공동체론이 현실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하고 그 미래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내외 동아시아 담론의 신화성을 따집니다. 복합의 세기를 만나 시작된 세계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야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전략이자 제도적 장치인 동맹을 제대로 짜나갈 수 있다는 주장은 《21세기 신동맹》(2010)에서 펼쳐집니다. 북한의 21세기 발전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룬 《북한 2032》(2010)는 북한의 변화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한 및 주변국가의 동시적 변화 혹은 '공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위기와 복합》(2011)은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세계 차원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다시 해석하려 합니다. 새 시대의 명분에 어울리는 설

계도를 마련하느라 바빠 움직이는 미국과 신세계질서 재건축의 설계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질서가 주도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학술적 이론은 긴장감 있게 현실의 변화를 품으려 해야 하고, 현실의 변화는 학술적 이론으로 항상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 연구 결과들입니다.

EAI는 일찍부터 중국의 부상을 외교안보 정책연구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0 중국 리스크》(2007)는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는 한국의 생존과 발전전략을 논하는 것이 공허하다는 진단 아래 가까운 미래의 중국 리스크를 예측한 시도입니다.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2011)는 그 시야를 정치, 사회, 외교, 안보의 영역으로 넓히고, 중국 내부의 목소리까지 담아 종합적인 미래 예측을 시도했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분명 일본으로 하여금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확장적 관여와 지역을 넘어선 대외전략 수립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들게 하고 있다는 시선에서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재탐색한 결과는 《일본과 동아시아》(2011)에 담겨 있습니다.

국가대전략 수립을 위한 커다란 밑그림을 밀도 있게 묘사하는 한편, 당면한 현안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2006),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2006), 그리고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2008)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냉전과 탈냉전 동맹을 넘어선 복합동맹을 제안했습니다. 핵무기를 분해하듯 2005년의 미북공동성명을 조심스럽게 해체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논의는 한미 양국의 미래 동맹체제에 대한 공동 비전의 마련을 선결조건으로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한 선입견 없는 객관적 시각으로 초당파적 정책 제언에 전념했습니다. ■



2008년 3월 18일
제13차 지구넷21 포럼
T.J. 펨펠
캘리포니아-버클리대 교수



2011년 2월 15일
후원자 모임
무토 마사토시 주한일본 대사



2007년 1월 15일
제8차 한미디어얼로그 21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 전여욱 한나라당 의원, 이홍구 EAI 이사장

아시아안보 이니셔티브 MacArthur Asia Security Initiative

맥아더 재단은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갈등 완화 및 평화 구축에 기여할 정책대안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그래서 아시아안보 이니셔티브를 운영할 능력 있는 정책연구기관을 지원하여 싱크탱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할 명망 있는 싱크탱크를 찾았습니다. 결론은 EAI였습니다. 2009년 맥아더 재단은 동북아 안보 도전 클러스터를 주도할 핵심기관으로 EAI를 선정했습니다. 한국 유일의 핵심기관인 EAI는 지난 3년 동안 클러스터에 속한 6개 싱크탱크들과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해 비정부간 협력을 도모해 왔습니다. 또한 동맹질서, 북한선진화, 동북아 정체성 등 세 가지 정책연구 테마에 기초하여 다양한 연구 결과를 글로벌 지식사회로 전파해 왔습니다. 맥아더 재단은 지금까지의 정책연구 결과를 높이 평가하여 EAI에 대한 4차년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아시아안보 이니셔티브를 통해 EAI는 아시아안보연구의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심을 읽고, 쟁점을 찾다 Analyzing Public Opinion



2011년 11월 10일
제3차 평택미래발전 대토론회
정한을 EAI 수석연구원



2007년 10월 29일
국가대전략 강연회
이재열 사회신리 연구패널 위원장



2008년 12월 11일
소프트파워 국제학술회의
안 엘리센 네덜란드 국제관계 연구소 소장과
피터 카첸스타인 코넬대 교수

민심을 읽고, 쟁점을 찾다

EAI 는 생각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책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그래서 민심을 정확히 읽고 쟁점이 무엇인지를 가능한 객관적으로 밝히고자 했습니다. 여론의 향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론조사만큼 다수 국민들의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선호를 가장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EAI 여론분석 연구는 쟁점 속의 민심, 민심 속의 쟁점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일을 중점 과제로 삼았습니다.

선거는 주기적으로 국민의 정책선호를 가장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정치적 의례(儀禮)입니다. EAI의 여론분석 연구가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첫 번째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입니다. 우선 틀에 박힌 기존 여론조사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마치 경마 보도를 하듯 주요 후보의 지지율을 비교하는 여론조사는 21세기형 지도자의 자질, 능력, 노선 및 정책을 검증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책을 일반 대중의 선호에만 따를 경우 수반되는 포퓰리즘의 위험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2002 대선평가와 노무현 정부의 과제》(2003)와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2003)입니다. 전자는 4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집단적 평가를 수록했고, 후자는 다수의 국민들이 품은 신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쟁점 별로 탐색했습니다. 정책담당자들이 여론의 향배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국정운영의 방향을 정한다면 과거 정부의 실패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널리 공개하고 공유하는 전통 또한 새롭게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구현한 《여론브리핑》 시리즈는 106호까지 발간되었고,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중국 해방일보 등 해외 언론사에서 그 분석 결과를 인용할 정도로 공신력이 높습니다.

한국의 선거 및 여론분석 연구에 신기원(新紀元)을 연 것은 2006년 지방선거를 포착한 《변화하는 한국유권자》(2007)입니다. 다른 어떤 기관도 시도한 바 없는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유권자의 의식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추적과 분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 서울방송, 그리고 한국리서치와의 탄탄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지면과 전파를 통해 널리 파급시키는 전범(典範)을 창출했습니다. 혁신적 분석기법과 신속한 파급경로를 결합시킨 연구기획은 이후 2007년 대통령 선거를 다룬 《변화하는 한국유권

자 2》(2008),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다룬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2009),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를 다룬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2011)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졌습니다.

EAI는 경험적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이론적 주장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당연시되었던 한국정치 담론들을 하나하나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시리즈는 동일한 응답자를 반복 조사하여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쟁점 속 유권자의 모습을 투표 여부에서부터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투표 선택 자체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담담하게 그려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당지지의 재편은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것인가, 386세대의 부상은 연령 효과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세대 효과에 의한 것인가, 상층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는 민주주의의 적인가 아니면 바람직한 요소인가 등 한국의 선거 및 여론분석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질문들에 답하려 했던 것입니다.

EAI는 한국인이 원하는 정책과 정치를 넘어선 곳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쉽게 의문을 품기 어려웠던 국민 정체성을 실증적 정책연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었습니다. 한국인은 누구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2007)와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2011)는 그렇게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실증적 해답의 편린(片鱗)들을 모아서 만든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게 시차를 두고 국민 정체성 조사를 실시하여 그 변화와 지속을 비교론적 시각에서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의식 속에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사회 내부 구성의 다양성이 더욱 증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체성의 속성도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경험적으로 밝혀진 변화하는 국민 정체성은 오랜 시간 동안 단일민족의 신화 속에 살아온 한국인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일지 모릅니다. ■



2007년 10월 29일
국가대전략 강연회
강원택 시민정치 연구패널 위원장



2009년 9월 11일
동아시아 평화 컨퍼런스
이동률 중국 연구패널 위원장



2005년 8월 19일
미국의 리더십과 국제여론 국제학술회의
로버트 샤피로 컬럼비아대 교수와 벤저민 페이지 노스웨스턴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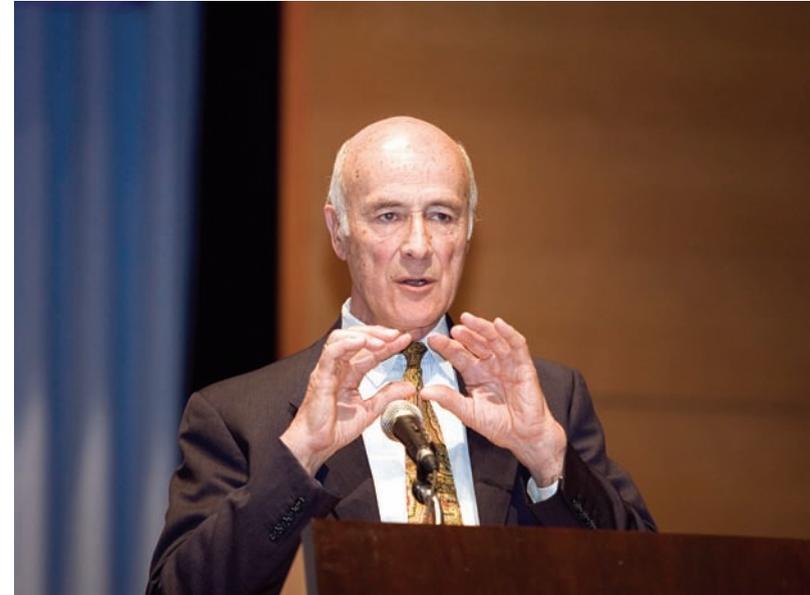


지혜를 나누고, 통찰을 얻다 Sharing Wisdom



2005년 7월 27일
도라산 평화·인권 강연회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2006년 2월 13일
제8차 지구넷21 포럼
로버트 아인혼 미국 전략국제문제
연구센터 선임고문



2008년 2월 12일
소프트파워 강연회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



2009년 11월 3일
제3회 한미동맹 강연회
토머스 크리스텐센 프린스턴대 교수

지혜를 나누고, 통찰을 얻다

EAI 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한 사람의 독백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생겨난다고.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쟁점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쟁명(爭鳴)하는 공론장을 열고자 했습니다. 현인(賢人)들의 혜안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쟁점을 비추면 문제의 원인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로부터 널리 쓰일 수 있는 정책적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AI가 포럼과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현인들의 지혜를 나누고 시대를 앞서서 통찰을 얻고자 하는 연유입니다.

아이디어는 국경을 넘어 퍼져 나가야 합니다. 상충하는 국가이익을 조율하고 국가간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폭을 넓힐 방법을 찾았습니다. 2004년 발족한 《한미다이얼로그 21》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주한미대사관, 주한미군, 주한미상공회의소의 고위인사들과 만나 EAI의 정책제언을 토론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외교채널로 자리잡았습니다. 2008년부터 개최된 《평택미래발전 대토론회》와 2011년에 시작된 《뉴평택 지식포럼》에서 EAI는 평택시와 주한미군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가교의 역할을 맡아 미래형 도시계획의 청사진을 두 기관과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창설한 《한중 동북아안보대화》와 《한호 리더십 포럼》을 통하여 공공외교의 폭을 서쪽과 남쪽으로 넓히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EAI의 정책 아이디어를 중국 및 호주의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민간외교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스마트 토크 포럼》은 스트로브 텔벗 부르크스 연구소 소장 등 학술지식과 정책마인드를 겸비한 해외 전문가들이 창의적 의견을 제시하고, EAI 지식네트워크에 속한 국내 학자들과 대화를 펼치는 글로벌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생산자가 아니라 사용하는 소비자가 그 주인입니다. EAI가 세상에 내놓은 정책 아이디어는 검증 거쳐 사회로 전파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2004년 출범한 《지구넷 21 포럼》은 국내외 고위 외교안보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제언을 직접 경청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학자와 언론인으로 이루어진 EAI의 전문가 집단이 그것을 비판적으로 토론하면서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색해 왔습니다.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 EAI의 정책연구결과를 설명하여 미래한국의 지적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인프라비전 포럼》은 2006년부터 시작되어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손학규 민주당 의원, 김

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초청해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EAI는 저명한 해외연구기관과 함께 컨퍼런스를 조직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2003년 하버드대와 공동으로 마련한 《신(新)팍스 아메리카나 국제학술회의》와 북미 고프바초프 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동아시아의 평화, 발전, 지역주의 국제학술회의》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며, 그 결과물은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2005)와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2007)로 각각 발간되어 EAI의 정책연구를 국제적으로 알렸습니다. 2005년 캘리포니아-샌디에고대와 공동으로 주최한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다양성 국제학술회의》와 2006년 스탠포드대와 공동으로 마련한 《동아시아의 기업개혁과 체제재편 국제학술회의》 또한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며, 그 결과물은 《Adapt, Fragment, Transform》(2011)으로 발간되었습니다.

한 번의 대화만으로는 충분히 다듬어낼 수 없는 중요한 정책의제도 있습니다. EAI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모여 쟁론을 펼쳐야 하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컨퍼런스를 통해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2008년부터 개최해 온 《한미동맹 컨퍼런스》는 그렇게 장기적인 시야에서 21세기 한미관계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자 한 노력의 시발점입니다. EAI의 시그니처 컨퍼런스로 자리잡은 《한미동맹 컨퍼런스》는 2010년 신미국안보센터와 공동으로 마련한 네 번째 회의를 포함하여 모두 다섯 번에 걸쳐 국내외 전문가들의 탁견을 집약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에 열린 《소프트파워 현자회의》는 국내 공론장에 공공외교와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또 하나의 시그니처 컨퍼런스입니다. EAI는 《소프트파워 현자회의》의 논의를 발전시켜 시카고 국제문제 협회와 공동으로 《소프트파워 국제학술회의》를 2008년 서울에서, 2009년 시카고에서 각각 개최하고 그 결과물로 《Soft Power in Asia》(2009)와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2011)를 각각 출판했습니다. ■



2008년 7월 3일
제1회 한미동맹 컨퍼런스
잭 크라우치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김희상 전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



2009년 11월 5일
제2회 한호 리더십 포럼
김중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010년 12월 1일
제13차 스마트 토크 포럼
스트로브 텔벗 부르크스 연구소 소장,
리처드 부시 부르크스 연구소 연구위원, EAI 연구패널



사람을 키우고, 미래를 꿈꾸다 Nurturing the Future



2010년 3월 3일
사회과학 대강좌
하영선 지구넷21 회장

2009년 11월 3일
제3회 한미동맹 컨퍼런스
토머스 크리스텐센 프린스턴대 교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지아 징귀 베이징대 교수, EAI 인턴들



사람을 키우고, 미래를 꿈꾸다

EAI 는 생각했습니다. 인재를 길러내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는 밝을 수 없다고. 그래서 대중의 마음 속에 정책적 비전이 살아 숨쉬게 할 배움의 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청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래한국은 재능이 넘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AI가 교육과 인재개발에 힘써 사람을 키우고 미래를 꿈꾸는 연유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지식을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EAI의 정책제언이 사회 속에 퍼져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아일랜드의 첫 여성 대통령이자 유엔고등인권관으로서 평화의 정신을 설파하고 인권운동의 선봉에서 온 메리 로빈슨 여사를 모시고 2005년에 개최한 <도라산 평화·인권 강연회>에는 그러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7년에 열린 <국가대전략 강연회>는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시대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EAI가 축적한 다양한 정책제언을 대중들에게 알렸습니다. 하버드대 조셉 나이 교수를 초빙하여 2008년에 가진 <소프트파워 강연회>는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소프트파워가 강한 매력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기회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세 차례에 걸쳐 한국과 미국의 전직 대통령 안보보좌관 등을 초청하여 <한미동맹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연회에서는 미래의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간 관계가 강화되고 협력이 증진되는 포괄적 동맹으로 변환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2010년 여덟 번의 연속 강의 형태로 <사회과학 대강좌>를 열어 18세기 북학파부터 21세기 복합파까지 한국의 근현대사를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풀어내는 대중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영선 지구넷21 회장이 연사로 나선 이 대강좌에서는 한국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가 나

아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강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물로 <역사 속의 젊은 그들>(2011)이 출판되었습니다.

교육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탐구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진리탐구의 방식은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EAI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한국의 대학교육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유학을 가지 않아도 세계적 석학의 아이디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글로벌 아카데미>는 이러한 취지에서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정치학회장을 역임한 피터 카첸스타인 코넬대 교수 등 EAI 펠로우즈 프로그램에 선발된 우수한 해외학자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되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쌍방향의 토론식 교육을 만들어 갑니다.

EAI는 2004년부터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용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젊은 그들이 EAI의 정책연구 및 포럼,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미래에 대한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안목을 길러갔습니다. 인턴십을 수료한 학생들은 <에픽 스파이더즈>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에픽 영 리더스 컨퍼런스>를 2010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청년들을 대상으로 논문을 공모하여 EAI 지식 네트워크에 속한 학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 논문을 선정 후 컨퍼런스에서 공중에게 발표하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2011년 8월 17일
제2회 에픽 영 리더스 컨퍼런스
우수상 수상자 한택진

2011년 5월 25일
EAI 후원자 자녀 안보탐방



2010년 7월 8일
아시아안보 이니셔티브 2010 연례회의
EAI 인턴들

EAI 펠로우즈 프로그램 EAI Fellows Program on Peace, Governance, and Development in East Asia

헨리 루스 재단은 생각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연구가 국제적 인문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그래서 지역연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실적 높은 정책연구기관을 후원하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지식 허브로 기능할 수 있는 싱크탱크를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결론은 EAI였습니다. 2005년 헨리 루스 재단은 동아시아의 평화, 거버넌스 및 발전을 위한 EAI 펠로우즈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이외의 기관으로는 최초로 헨리 루스 재단의 후원대상 기관이 된 EAI는 이후 매년 전 세계 동아시아를 전공하는 5-6명의 학자를 선발하여 글로벌 아카데미 및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펠로우들은 서울, 베이징, 상하이, 도쿄, 타이페이의 제휴기관에 체류하면서 동아시아지역학 확립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대만 장경국 재단이, 2010년부터는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와이비엠/한국외국인학교가 펠로우즈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듣고, 열정으로 답하다 Supporting EAI



2011년 2월 15일
후원자 모임



2010년 2월 26일
후원자 모임



2006년 12월 12일
후원자 모임



2009년 8월 25일
후원자 모임



2007년 8월 29일
후원자 모임

희망을 듣고, 열정으로 답하다

EAI 는 생각했습니다. 연구원의 재정을 정부나 기업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싱크탱크의 독립성을 키울 수 없다고. 그래서 연구원의 재정 후원처를 다변화(多邊化)하여 이해상충의 위험을 줄이고 정책연구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정부주도형 싱크탱크와 기업주도형 싱크탱크가 주도하는 한국의 지식시장 생태계에서 비영리 싱크탱크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어떠한 외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정책연구기관의 존재는 미래한국의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EAI가 후원회를 조직하여 국민들의 희망을 듣고 열정적으로 정책아이디어를 생산하려는 연유입니다.

작은 액수라도 다수가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EAI와 함께 꿈을 꾸는 후원회원들은 연구원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2003년 7명으로 출발한 EAI 후원회는 2011년 2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매달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이 EAI의 정책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후원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기발전기금 또한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EAI는 정책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후원처를 모색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맥아더 재단》은 2009년부터 외교안보 정책연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펠로우즈 프로그램은 《헨리 루스 재단》, 《대만 장경국 재단》, 《일본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재단》, 《주한미국대사관》, 《북미 고르바초프 재단》, 《히말라야 재단》 등은 다양한 포럼과 컨퍼런스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국제여론조사 사업은 《글로벌스캔》과 《월드 퍼블릭 오피니언》으로부터 지원을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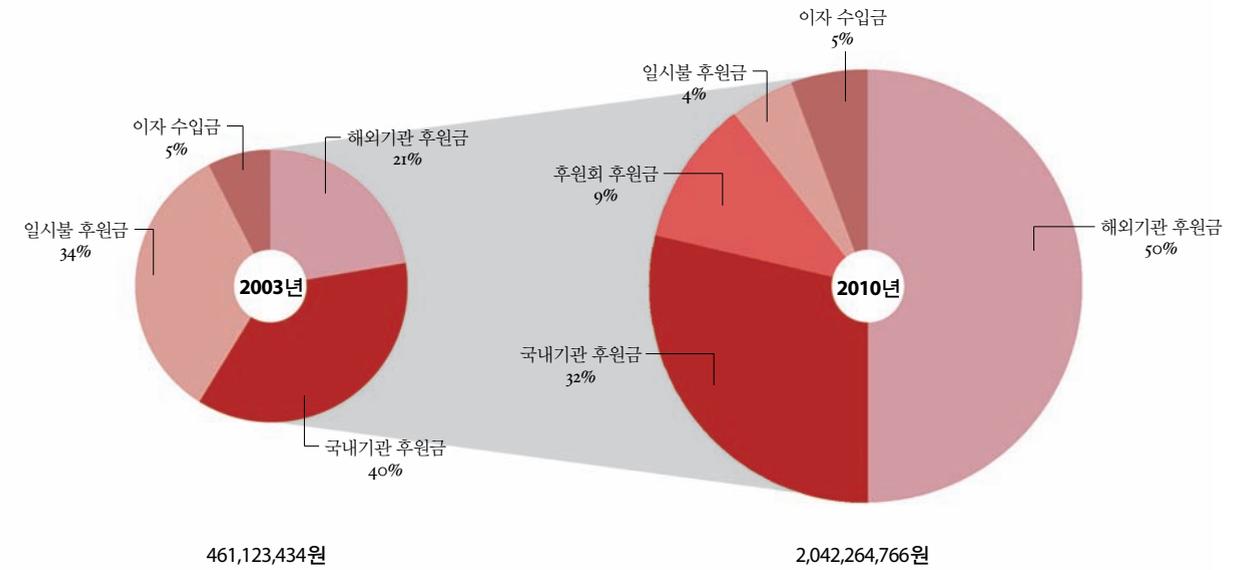
았습니다.

국내기관 또한 EAI의 정책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8년부터 《평택시》는 한미동맹 컨퍼런스와 평택 시민대토론회를 지원했습니다. 소프트파워 컨퍼런스와 국제여론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중앙일보》와 《서울방송》으로부터는 선거패널조사 비용을 후원 받았습니다. 에픽 영 리더스 컨퍼런스는 《삼양사》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와이비엠/한국외국인학교》는 펠로우즈 프로그램을 재정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연구재단》, 《경기문화재단》, 《시도지사협의회》, 《조선일보》, 《매일경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50개가 넘는 국내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다양한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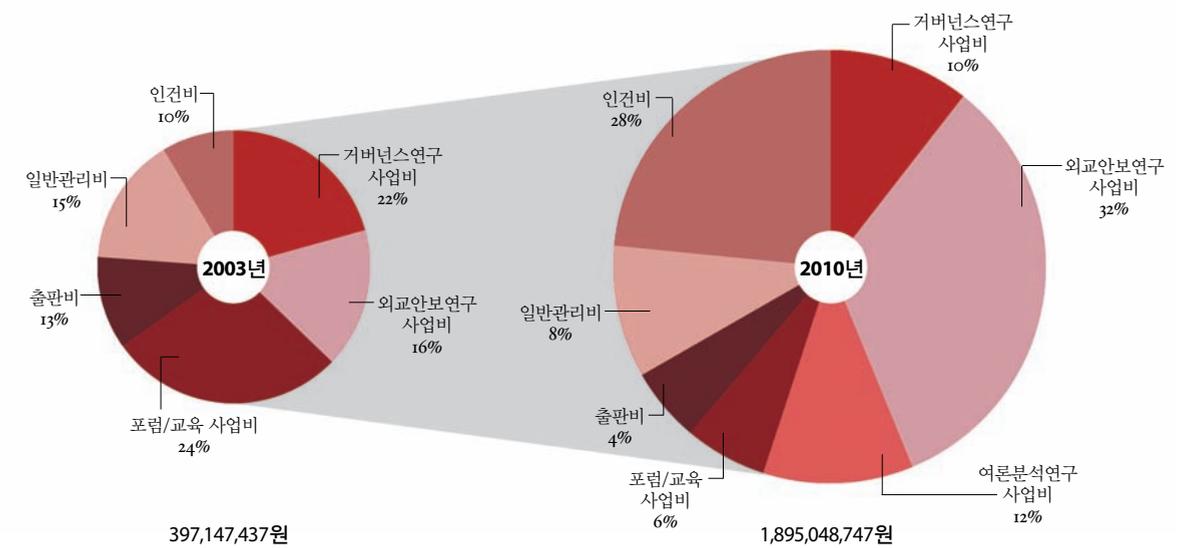
국내외 다수의 기관이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EAI의 성장과 성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주도 혹은 기업주도의 싱크탱크가 지배적인 환경 속에서 EAI는 제한된 자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싱크탱크들에게 대안적 모범을 제시했습니다. 그 모범은 활발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재정 확충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기업, 그리고 대학으로부터도 자율적인 정책연구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후원회원의 열정이 지금의 EAI를 있게 했습니다. ■



운영수입



운영지출



EAI 커뮤니티

참여 연구진

거버넌스

대통령의 성공조건 연구패널(2002)
김병국(고려대), 김판석(연세대), 모종린(연세대), 박세일*(서울대), 박재완(성균관), 염재호(고려대), 이홍규(한국정보통신대), 장훈(중앙대), 정종섭(서울대), 최병선(서울대), 황성돈(한국외대)

국회/정치개혁의 성공조건 연구패널(2003-2004)

강원택(송실대), 김민전(경희대), 김병국(고려대), 김용민(한국외대), 김용호(인하대), 김의영(경희대), 박세일*(서울대), 박재완(성균관대), 박재창(숙명여대), 박찬욱(서울대), 박철희(외교안보연구원), 서병훈(송실대), 이내영(고려대), 이연호(연세대), 임성학(중앙대), 임성호(경희대), 장훈(중앙대), 정종섭(서울대)

한국 경제개혁 사례 연구패널(2003-2005)

김병국(고려대), 이근*(서울대), 이재열(서울대), 이정훈(하와이대)

4개국 시민사회데이터뱅크 연구패널(2003-2005)

김병국(고려대), 김선희*(고려대), 정원철(EAI), 주윤한(국립대만대), 제고르즈 에키프(하버드대), 벨라 그레스코비츠(중앙유럽대), 얀 큐빅(뱃거스대), 제이슨 위텐버그(위스컨신-메디슨대), 우친연(대만 중앙연구원)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연구패널(2004-2005)

김병국(고려대), 김은미(이화여대), 김의영(경희대), 나성린(한양대), 송호근(서울대), 윤영철(연세대), 이내영(고려대), 이종훈(명지대), 이홍규(한국정보통신대), 장훈*(중앙대), 정진영(경희대)

분권헌법 연구패널(2005-2006)

권순만(서울대), 김병국(고려대), 김병기(아주대), 김선혁(고려대), 김태유(서울대), 김태중(한국개발연구원), 박정수

(이화여대), 이만형(충북대), 이재열(서울대), 이종화(고려대), 이홍규(한국정보통신대), 임현진*(서울대), 전영평(대구대), 정원철(EAI), 정윤수(명지대), 최병선*(서울대), 하연섭(연세대), 홍준현(중앙대), 홍준형(서울대)

교육 및 조기유학 연구패널(2006-2007)

김병국(고려대), 서소정(경희대), 이내영(고려대), 임천순*(세종대), 정일준(아주대), 하연섭(연세대), 황상민(연세대)

코리아 컨센서스 연구패널(2006-2008)

김병국(고려대), 손동현(성균관대), 윤순봉(삼성경제연구소), 이정우(철학아카데미)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연구패널(2007)

강원택(송실대), 김병국(고려대), 이홍규(한국정보통신대), 임성호(경희대), 정진영(경희대)

평택시 장기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축 연구패널(2008)

김근세(성균관대), 이곤수(EAI), 이숙중*(성균관대), 정재호(EAI), 전영평(대구대)

민주화 이후 집회시위 비교 연구패널(2007-2008)

김선혁*(고려대), 신영환(EAI), 정원철(EAI), 정한울(EAI)

세계화 제2막 연구패널(2008-2010)

강석훈(성신여대), 권순만(서울대), 이곤수(EAI), 이숙중(성균관대), 이승주(중앙대), 이재승(고려대), 이철우(연세대), 장훈*(중앙대), 전재성(서울대), 정연(서울대)

미래사회 중산층 변동 전망과 대책 연구패널(2008-2009)

강원택(송실대), 김대일(서울대), 남은영(서울대), 서상민(EAI), 이곤수(EAI), 이숙중*(성균관대), 이재열(서울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평택국제학교 설립방안 연구패널(2009-2010)

김성기*(협성대), 안미리(한양대), 이곤수(EAI), 하봉운(경기대)

한국의 내셔널 어젠다 연구패널(2010-2011)

공석기(서울대), 구정우(성균관대), 김남국(고려대), 문명재(연세대), 박형준(성균관대), 이곤수(EAI), 이숙중*(성균관대), 장용석(연세대), 정원철(EAI)

민주주의2.0 연구패널(2011-)

강신구(아주대), 김동훈(고려대), 김병국*(고려대), 김정(EAI), 박원호(서울대), 이동선(고려대), 이용욱(고려대), 정재관(고려대), 정주연(고려대), 조화순(연세대), 주형민(고려대)

외교안보

북한핵대책 연구패널(2003)

김경원*(사회과학원), 김병국(고려대),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김일영(성균관대), 김형국(숙명여대), 박세일(서울대), 박용욱(전 국방차관), 양수길(전 OECD대사), 이정민(연세대), 최강(한국국방연구원), 홍순영(전 외무장관)

북한핵문제 연구패널(2003)

김일영*(성균관대), 김병국(고려대),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김형국(숙명여대), 최강(한국국방연구원), 현인택(고려대)

2004 국가안보 연구패널(2004)

김병국(고려대),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김영호(성신여대), 김태현(중앙대), 박철희(서울대), 신성호(서울대), 이상현(세종연구소), 이태환(세종연구소), 장훈(중앙대), 전재성(서울대), 정한울(EAI), 하영선*(서울대), 한용섭(국방대)

서울방송 “한국과 미국” 다큐멘터리 연구패널(2004)

김병국(고려대),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김태현(중앙대), 정한울(EAI), 최강(한국국방연구원), 하영선(서울대)

한미동맹 로드맵 연구패널(2004-2006)

김경원*(사회과학원), 김병국(고려대),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김영호(국방대), 김일영(성균관대), 김재창*(전 연합사령부사령관), 김태현(중앙대), 김태효(성균관대), 신성호(서울대), 신옥희(서울대), 박종철(통일연구원), 박철희(서울대), 이내영(고려대), 이상현(세종연구소), 이시영(중앙대), 전재성(서울대), 차두현(한국국방연구원), 최강(한국국방연구원), 하영선*(서울대), 한태준(중앙대)

2005 국가안보 연구패널(2005)

김병국(고려대),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김태현(중앙대), 박종철(통일연구원), 박철희(서울대), 손열(중앙대), 신성호(서울대), 이상현(세종연구소), 이태환(세종연구소), 장훈(중앙대), 전재성(서울대), 정진영(경희대), 차두현(한국국방연구원), 최강(외교안보연구원), 하영선*(서울대), 한용섭(국방대)

2020 중국 리스크 연구패널(2005-2007)

강영삼(서울대), 김병국*(고려대), 김부용(서울대), 김아람(고려대), 김욱(서울대), 배진석(EAI), 송문희(EAI), 송인영(카네기멜론대), 이근*(서울대), 이지선(서울대), 스캇 로젤(캘리포니아-데이비스대), 나다니엘 스탠카드(하버드대)

2006 국가안보 연구패널(2006)

김병국(고려대),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김태현(중앙대), 김현진(삼성경제연구소), 민병원(서울산업대), 박종철(통일연구원), 박철희(서울대), 배영자(건국대), 서병훈(송실대), 손열(중앙대), 신법식(인천대), 신성호(서울대), 오승렬(한국외대), 이상현(세종연구소), 이태환(세종연구소), 장훈(중앙대), 전재성(서울대), 정진영(경희대), 차두현(한국국방연구원), 최강(외교안보연구원), 하영선*(서울대), 한승미(연세대)

2007 국가안보 연구패널(2007)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김태현(중앙대), 김현진(삼성경제연구소), 마상윤(가톨릭대), 민병원(서울산업대), 박종철(통일연구원), 박철희(서울대), 박휘락(국방대), 배영자(건국대), 서병훈(송실대), 손열(중앙대), 신법식(인천대), 신성호(서울대), 오승렬(한국외대), 이상현(세종연구소), 이태환(세종연구소), 장훈(중앙대), 전재성(서울대), 정진영(경희대), 차두현(한국국방연구원), 최강(외교안보연구원), 하영선*(서울대)

2008 국가안보 연구패널(2008)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김준석(가톨릭대), 김태현(중앙대), 김현진(서울과학종합대학원), 마상윤(가톨릭대), 민병원(서울산업대), 박종철(통일연구원), 박철희(서울대), 박휘락(국방대), 배영자(건국대), 손열(중앙대), 신법식(서울대), 신성호(서울대), 오승렬(한국외대), 이상현(세종연구소), 이태환(세종연구소), 장 훈(중앙대), 정진영(경희대), 전재성(서울대), 조영남(서울대), 차두현(한국국방연구원), 최강(외교안보연구원), 하영선*(서울대)

북한 2032 연구패널(2008-2010)

김수암(통일연구원), 우승지(경희대), 전재성(서울대), 조동호(이화여대), 하영선*(서울대), 황지환(명지대)

일본 연구패널(2008-2010)

강태웅(광운대), 김기석(강원대), 김상준(연세대), 김양희(대외경제연구원), 남기정(국민대), 박영준(국방대), 이숙중(성균관대), 이원덕(국민대), 조양현(외교안보연구원), 한상일*(국민대)

중국 연구패널(2008-)

김영진(국민대),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서상민(EAI), 신중호(경기개발연구원), 이동률*(동덕여대), 이정남(고려대), 정환우(국제무역연구소), 하도형(국방대), 한석희(연세대)

한중일 동아시아인식과 동아시아 공동체 정책 연구패널(2008)

김기석(강원대), 박영준(국방대학교), 서상민(EAI), 이숙중*(성균관대), 전재성(서울대), 조양현(외교안보연구원), 한석희(연세대)

2009 국가안보 연구패널(2009)

고봉준(제주평화연구원), 광준혁(고려대), 김동훈(고려대), 김준석(가톨릭대), 김치옥(세종연구소), 마상윤(가톨릭대), 박성우(중앙대), 손열(연세대), 신법식(서울대), 이동선(고려대), 이상현(세종연구소), 이숙중*(성균관대), 이승주(중앙대), 이용욱(고려대), 이재승(고려대), 이태환(세종연구소), 전재성(서울대), 정주연(고려대), 주형민(고려대), 차두현(한국국방연구원), 최강(외교안보연구원), 하영선*(서울대)

2010 국가안보 연구패널(2010)

고봉준(충남대), 김동훈(고려대), 김준석(가톨릭대), 김치옥(세종연구소), 마상윤(가톨릭대), 박성우(중앙대), 손 열(연세대), 신법식(서울대), 신성호(서울대), 이동선(고려대), 이상현(세종연구소), 이승주(중앙대), 이용욱(고려대), 이재승(고려대), 이태환(세종연구소), 전재성(서울대), 정주연(고려대), 주형민(고려대), 차두현(한국국방연구원), 최강(외교안보연구원), 하영선*(서울대), 황지환(명지대)

동북아정체성 연구패널(2009-)

광준혁(고려대), 이내영(고려대), 이숙중*(성균관대), 이용욱(고려대), 전재성(서울대)

2010 국가안보 연구패널(2010)

고봉준(충남대), 김동훈(고려대), 김준석(가톨릭대), 김치옥(세종연구소), 마상윤(가톨릭대), 박성우(중앙대), 손 열(연세대), 신법식(서울대), 신성호(서울대), 이동선(고려대), 이상현(세종연구소), 이승주(중앙대), 이용욱(고려대), 이재승(고려대), 이태환(세종연구소), 전재성(서울대), 정주연(고려대), 주형민(고려대), 차두현(한국국방연구원), 최강(외교안보연구원), 하영선*(서울대), 황지환(명지대)

한국외교의 중장기 전략과 비전 연구패널(2010-)

서상민(EAI), 손열(연세대), 이숙중(성균관대), 전재성(서울대), 최강(외교안보연구원), 하영선(서울대)

중국어의 한국인식과 대 중국 공공외교 강화방안 연구패널(2010)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서상민(EAI), 이내영(고려대), 이동률(동덕여대), 이숙중(성균관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한석희(연세대)

한국외교의 중장기 전략과 비전 연구패널(2010-)

서상민(EAI), 손열(연세대), 이숙중(성균관대), 전재성(서울대), 최강(외교안보연구원), 하영선(서울대)

미중관계 2025 연구패널(2010-2011)

김동훈(고려대), 김정(EAI), 손열(연세대), 신법식(서울대), 이동선(고려대), 이용욱(고려대), 정주연(고려대), 주형민(고려대)

G20 연구패널(2010)

손열*(연세대), 이승주(중앙대), 전재성(서울대), 조홍식(송실대)

2011 국가안보 연구패널(2011-)

구민교(서울대), 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연규(한양대), 김치옥(울산대), 서봉교(동덕여대), 손열(연세대), 신법식(서울대), 신성호(서울대), 이동률(동덕여대), 이동선(고려대), 이상현(외교통상부), 이승주(중앙대), 이용욱(고려대), 이재승(고려대), 이태환(세종연구소), 전재성(서울대), 조동호(이화여대), 최강(외교안보연구원), 하영선*(서울대)

북중 · 한중 · 남북관계 연구패널(2011-)

구갑우(북한대학원대), 오승렬(한국외대), 이동률(동덕여대), 조동호(이화여대), 하영선*(서울대)

미래한반도 연구패널(2011-)

김현경(문화방송), 변창흠(세종대), 이수정(북한대학원대), 이종호(한국예술종합학교), 조동호(이화여대)

핵안보정상회의 연구패널(2011-)

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성호(서울대), 이상현(외통부), 전재성*(서울대), 전진호(광운대)

공적개발원조 연구패널(2011-)

구정우(성균관대), 김태균(이화여대), 손열(연세대), 이숙중*(성균관대), 이승주(중앙대)

2004 정치분야 10대 뉴스 연구패널(2004)

김병국(고려대), 이내영(고려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여론분석

노무현 정부 1년 정책평가 연구패널(2003-2004)

김균(고려대), 김병국(고려대), 김용호(인하대), 김장호(한국직업능력교육원), 박재완(성균관대), 송호근(서울대), 윤영철(연세대), 이종수(한성대), 이종화(고려대), 이주호(한국개발연구원), 임현진*(서울대), 전주성(이화여대), 정진영(경희대), 하영선(서울대)

시카고 국제문제 협회 공동 3개국 대외인식 연구패널(2004)

김병국(고려대),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김태현(중앙대), 남궁곤(이화여대), 이내영*(고려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2004 글로벌스캔 국제이슈/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구패널(2004-2005)

김병국(고려대), 남궁곤(이화여대), 이내영*(고려대), 이재열(서울대), 장진호(연세대), 최영종(가톨릭대), 한준(연세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대미인식 연구패널(2004)

김병국(고려대),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김일영(성균관대), 이내영*(고려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정치사회인식 연구패널(2004-2005)

김병국(고려대), 이내영*(고려대), 최영종(가톨릭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사회심리 연구패널(2004-2005)

이재열*(서울대), 한준(연세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전문가 대외인식 연구패널(2004)

김병국(고려대), 김태현(중앙대), 이내영(고려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2004 정치분야 10대 뉴스 연구패널(2004)

김병국(고려대), 이내영(고려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EAI 커뮤니티

2005 BBC · 매일경제 · 한국리서치 공동 33개국 국제여론 연구패널 (2004-2005)
김병국(고려대), 김장수(고려대), 김태현(중앙대), 민병원(서울산업대), 이내영*(고려대), 이재열(서울대), 장진호(연세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한준(연세대)

2005 글로브스캔 · 매일경제 · 한국리서치 공동 22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구패널(2004-2005)
김병국(고려대), 남궁곤(이화여대), 이내영*(고려대), 이재열(서울대), 장진호(연세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최영중(가톨릭대), 한준(연세대)

시민정치 연구패널(2005-2007)
강원택*(숭실대), 김민전(경희대), 김병국(고려대), 김장수(고려대), 김태현(중앙대), 서현진(성신여대), 이내영(고려대), 이재열(서울대), 이현우(서강대), 임성학(서울시립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주한외국기업인 여론 연구패널 (2005)
김병국(고려대), 이내영*(고려대), 이시영(중앙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매일경제 공동 한국 대표 경제·경영학자 여론 연구패널(2005-)
이근*(서울대), 정원철(EAI)

2006 BBC · 매일경제 · 한국리서치 공동 35개국 국제여론 연구패널 (2005-2006)
김병국(고려대), 김장수(고려대), 김태현(중앙대), 남궁곤(이화여대), 민병원(서울산업대), 이내영(고려대), 이숙중*(성균관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2006 글로브스캔 · 매일경제 · 한국리서치 공동 33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구패널(2005-2006)
이재열*(서울대), 장진호(연세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한준(연세대)

서울방송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06 전국지방선거 연구패널 (2005-2006)
강원택(숭실대), 김민전(경희대), 김병국(고려대), 김장수(고려대), 김춘석(한국리서치), 노익상(한국리서치), 박돈해(한국리서치), 박종선(한국리서치), 서현진(성신여대), 신소연(EAI), 신창운(중앙일보), 심재웅(한국리서치), 유은정(한국리서치), 이내영*(고려대), 이현우(서강대), 임성학(서울시립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현경보(서울방송), 홍승헌(EAI)

시카고 국제문제 협회 공동 7개국 대외인식 연구패널(2006)
김병국(고려대), 김태현(중앙대), 남궁곤(이화여대), 민병원(서울산업대), 이내영(고려대), 이숙중*(성균관대), 이태환(세종연구소), 정원철(EAI), 정한울(EAI)

한국일보 공동 정치안보의식 연구패널(2006)
김병국(고려대), 김장수(고려대), 김태현(중앙대), 이내영*(고려대), 이상협(EAI), 정원철(EAI), 정한울(EAI)

미디어다음 공동 외교안보 및 경제전문가 한미정상회담 주요쟁점 연구패널(2006)
이내영(고려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2007 BBC · 매일경제 · 한국리서치 공동 27개국 국제여론 연구패널 (2006-2007)
송문희(EAI), 이내영*(고려대), 이상협(EAI), 정원철(EAI), 정한울(EAI)

2007 글로브스캔 · 매일경제 · 한국리서치 공동 30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구패널(2006-2007)
곽소희(EAI), 이근(서울대), 이내영*(고려대), 이숙중(성균관대), 이재열(서울대), 장진호(연세대), 정한울(EAI)

시카고 국제문제 협회 · 월드 퍼블릭 오피니언 공동 17개국 대외인식 연구패널(2006-2007)
김병국(고려대), 김태현(중앙대), 남궁곤(이화여대), 민병원(서울산업대), 이내영(고려대), 이숙중*(성균관대), 이태환(세종연구소), 정원철(EAI), 정한울(EAI)

서울방송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07 대통령선거 연구패널 (2006-2007)
강원택(숭실대), 김민전(경희대), 김병국(고려대), 김장수(고려대), 김춘석(한국리서치), 박찬욱(서울대), 서현진(성신여대), 이현우(서강대), 임성학(서울시립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진영재(연세대), 현경보(서울방송)

2007 중앙일보 공동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연구패널(2006-2007)
강원택*(숭실대), 곽소희(EAI), 이내영(고려대), 이현우(서강대), 정한울(EAI)

동아시아 소프트파워 국제여론 연구패널(2007-2008)
곽소희(EAI), 이내영(고려대), 이숙중*(성균관대), 이신화(고려대), 이용욱(고려대), 지병근(고려대), 정한울(EAI)

월드 퍼블릭 오피니언 · 경향신문 공동 국제인권 연구패널(2008)
곽소희(EAI), 이내영(고려대), 이숙중*(성균관대), 정한울(EAI)

서울방송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08 국회의원선거 연구패널 (2008)
강원택(숭실대), 곽소희(EAI), 권혁용(고려대), 김민전(경희대), 김성태(고려대), 김춘석(한국리서치), 박종선(한국리서치), 박찬욱(서울대), 서현진(성신여대), 신창운(중앙일보), 유성진(이화여대), 이현우(서강대), 이내영*(고려대), 임성학(서울시립대), 정한울(EAI), 진영재(연세대), 현경보(서울방송)

2008 중앙일보 공동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연구패널(2008)
강원택*(숭실대), 곽소희(EAI), 이내영(고려대), 이현우(서강대), 정한울(EAI)

2009 글로브스캔 공동 32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구패널(2008-2009)
이내영*(고려대), 이숙중(성균관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국민계층의식 연구패널(2009)
강석훈(성신여대), 강원택(숭실대), 구인회(서울대), 권혁주(서울대), 이숙중*(성균관대), 이재열(서울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최강식(연세대)

2009 중앙일보 공동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연구패널(2009)
강원택*(숭실대), 이현우(서강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파워정치인 신뢰영향력 연구패널 (2009)
이내영*(고려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한국리서치 공동 2009 정기여론바로미터 연구패널(2009)
서상민(EAI), 이내영*(고려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매일경제 공동 정치안보의식 연구패널(2009)
이내영*(고려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이명박대통령 취임 1년 여론 연구패널(2009)
이내영*(고려대), 이숙중(성균관대), 전재성(서울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월드 퍼블릭 오피니언 공동 20개국 국제여론 연구패널(2009)
이근수(EAI), 이내영*(고려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2010 BBC · 글로브스캔 · 매일경제 공동 26개국 국제여론 연구패널 (2009-2010)
이내영*(고려대), 이숙중(성균관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한국리서치 공동 2010 정기여론바로미터 연구패널(2010)
서상민(EAI), 이근수(EAI), 이내영*(고려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서울방송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10 전국지방선거 연구패널 (2010)
서상민(EAI), 이근수(EAI), 이내영*(고려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연구패널(2010)
강원택*(서울대), 문명재(연세대), 서상민(EAI), 유민봉(성균관대), 윤인진(고려대), 이근수(EAI), 이내영*(고려대), 이숙중(성균관대), 이신화(고려대), 이용욱(고려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황정미(고려대)

유권자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패널(2010)
서현진(성신여대), 이근수(EAI), 이내영(고려대), 임성학(서울시립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국정소통지수 산출과 국정소통 국민인식 연구패널(2010-2011)
강원택(서울대), 서상민(EAI), 이근수(EAI), 이내영(고려대), 이재열(서울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지병근(조선대)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11 정기여론바로미터 연구패널 (2011)
서상민(EAI), 이근수(EAI), 이내영*(고려대), 정원철(EAI), 정한울(EAI)

한중 국민인식 연구패널(2011-)
서상민(EAI), 이내영(고려대), 이동률(동덕여대), 이동준(고려대), 이숙중(성균관대), 이정남(고려대), 전재성(서울대), 정원철(EAI), 정주연(고려대), 정한울(EAI), 한석희(연세대)

*연구패널 위원장. 소속은 연구패널 당시를 기준으로 함.

박정희 시대 집필진			
김병국(고려대) 김용직(성신여대) 김은미(이화여대) 김주홍(울산대) 김태현(중앙대) 김형아(호주국립대)	그레고리 노블(도쿄대) 조지 도밍게스(하버드대) 류상영(연세대) 문정인(연세대) 박길성(고려대) 박명림(연세대)	백창재(서울대) 에즈라 보겔(하버드대) 유석진(서강대) 이내영(고려대) 이민영(육군사관학교) 이영조(경희대)	이정훈(연세대) 임혁백(고려대) 전병준(SK텔레콤) 한용섭(국방대) 폴 허치크로프트(호주국립대) 홍성걸(국민대)

EAI 펠로우즈			
2005	제프리 브로드벤트 닐 디아망 하오 유판 데이비드 강 길버트 로즈맨 서재정	미네소타대 딕슨칼리지 콜게이트칼리지 다트머스칼리지 프린스턴대 코넬대	조나단 슈와르츠 신기욱 에텔 솔린겐 앨런 와치맨
2006	첵 툰젠 자크 하이만 빅토리아 티보 후이 피터 카첸스타인 T.J. 켈펠 엘리자베스 앤 위시닉	윌리엄앤매리칼리지 스미스칼리지 노틀담대 코넬대 캘리포니아-버클리대 몽클레어주립대	2009 메리 앨리스 하다드 제니퍼 린드 리처드 새뮤얼스 바바라 스탈링스 수전 윗팅
2007	매튜 칼슨 윌리엄 그라임스 김수연 이홍영 유충성 왕 지안웨이	버몬트대 보스턴대 매릴랜드대 캘리포니아-버클리대 캘리포니아-샌디에고대 위스컨신-스티븐스포인트대	2010 스티브 쉐 오렐 크로와상 에블린 고 이브 티베르겐 앤드류 여
2008	카타다 사오리	서던캘리포니아대	뉴욕-뉴팜츠주립대 스탠포드대 캘리포니아-어바인대 터프츠대 웨슬리언대 다트머스컬리지 매사추세츠공대 브라운대 워싱턴주립대 콜로라도-보울더대 하이델베르그대 런던로얄홀로웨이대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미국가톨릭대 2011 허 카이 유현주 정 유 피터 반 네스 토마스 버거 유타주립대 트리니티대 코네티컷대 호주국립대 보스턴대

포럼 연사

지구넷21 포럼(구 글로벌 포럼)		
2003	마샬 부튼	시카고 외교협회 회장
	존 볼튼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
2004	전재성	서울대 교수
	한용섭	국방대 교수
2005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 대사
	리처드 로우리스	미국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대사
	스테판 헤거드	캘리포니아-샌디에고대 교수
2006	닝쿠푸이	주한중국 대사
	로버트 아인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센터 선임고문
	오시마 쇼타로	주한일본 대사
2007	2007 국가안보 연구패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
	앨런 브링클리	컬럼비아대 부총장
2008	T.J. 펠펠	캘리포니아-버클리대 교수
	피터 카첸스타인	코넬대 교수
	2008 국가안보 연구패널	
2009	스테판 헤거드	캘리포니아-샌디에고대 교수
	현인택	통일부 장관
2010	G20 연구패널	
	김문수	경기도지사
2011	로버트 조셉	전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

한미다이얼로그 21

2004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전재성	서울대 교수
2005	찰스 퍼거슨	외교관계 평의회
	윌리엄 그라임스	보스톤대 교수
	스테판 헤거드	캘리포니아-샌디에고대 교수
2006	전재성	서울대 교수
	하영선	서울대 교수
2007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
2008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

인프라비전 포럼

2006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고건	전 국무총리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2007	열린우리당 미래포럼	
2009	조현	외교통상부 에너지지원 대사
	김현중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태식	전 주미 대사

	박동선	외교통상부 경제협력 대사
	김성환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2010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일본 대사
	이창용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담당
	김태우	대통령 직속 국방신진화추진위원회 위원
	조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2011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제1차관
	일본연구센터/현대일본학회	
	우야마 토모치카	주한일본 대사관 공사

스마트 토크 포럼

2009	바바라 스타링스	브라운대 교수
	찰스 프리차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마이크 모치즈키	조지워싱턴대 교수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조엘 워트	컬럼비아대 연구원
2010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
	이고르 크리프노프	조지아대 교수
	존 박	미국평화연구소 연구원
	무티아 알라가파	하와이 동서센터 수석연구원
	홀리 세메트코	에모리대 교수
	마샬 부튼	시카고 국제문제 협회 회장
	이브 티베르겐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
	스트로브 텔벗	브루킹스연구소 소장
	리차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위원
2011	다나카 히토시	전 일본 외무성 차관
	사이토 준	에일대 교수
	데이비드 강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
	스테판 헤거드	캘리포니아-샌디에고대 교수
	로웰 디트머	캘리포니아-버클리대 교수
	왕 페어링	조지아공대 교수
	프리드리히 크라토크빌	유럽대학원대 교수

평택미래발전 대토론회(평택지식포럼)

2009	김성기 협성대 교수, 남영우 고려대 교수, 안미리 한양대 교수, 이곤수 EAI 선임연구원	
2010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백종실 평택대 교수, 이곤수 EAI 선임연구원, 정재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환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주재복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2011	강호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병규 대구대 연구교수, 이곤수 EAI 선임연구원, 이월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한울 EAI 수석연구원, 브라이언 포트 주한미군 전략처 부국장, 황금희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역대 이사

김경원 2006-2008	김철호 2006-2008	오동기 2009-2011	최재원 2004-2008
김병국설립자 2002-2008	故김형국 2004-2010	타미 오버비 2005-2009	최진원 2002-2010
김병국 2003-2007	남태희 2006-2010	이상호 2006-2008	최철원 2007-2011
故김상우 2002-2005	노익상 2007-2011	장진호 2002-2009	한승주 2002-2010
김윤호 2004-2010	서진영 2002-2010	최동진 2002-2006	현정은 2004-2008

역대 센터소장

곽준혁 2009-2010	김태현 2005-2008	이근 2002-2008	장훈 2006-2008
김병국 2002-2003	김판석 2002-2004	이원덕 2008-2011	
김선혁 2006-2008	모종린 2002-2008	임혁백 2002-2004	

역대 연구원

곽소희 2008-2009	문용일 2009-2010	여지희 2004-2005	전은경 2002-2004
김송주 2010-2011	박소영 2006-2007	이상협 2007-2008	정재호 2007-2008
김윤희 2008-2009	배진석 2005-2007	이소영 2009-2010	지예원 2009-2010
노현정 2010-2011	송문희 2006-2007	이지선 2005-2006	

역대 인턴

강경준	김미주	김주영	박경호	양투안 봉다	양소영	이고은	이지영	임찬중	정지혜	최지윤
강물결	김민경	김주은	박규령	서현영	양홍석	이기원	이지원	임효신	정찬일	최형진
강민경	김민정	김주희	박동욱	성다운	엄지	이나래	이지원	장선영	정채린	최혜민
강범화	김보현	김지수	박성민	소수연	여현정	이나은	이진아	장예준	정현의	프란세스크
강성혜	김선	김지연	박성은	손민정	염상화	이민주	이진아	장운정	정훈호	폰 카셀라
강은혜	김성은	김지원	박세호	손유정	오현지	이보람	이진아	장재원	조상녕	리사 콜린스
강지수	김성희	김진	박소연	손형탁	우혜영	이상연	이진우	전계현	조상호	마이클 프라이스
공연희	김성희	김진	박소현	손효란	빅토리아 워렌	이선경	이진원	전수민	조승연	한나래
곽소희	김세미	김진곤	박연호	송민정	유민경	이선정	이청민	전정화	조영민	허경주
곽혜원	김세아	김태영	박예슬	송수민	유승희	이수진	이청민	전지훈	조영준	허윤선
구미경	김소정	김태훈	박윤하	송수정	유재승	이승준	이현경	전하민	조윤경	허윤선
권석필	김송은	김태희	박은실	송영욱	유정선	이승현	이혜선	정강은	조종완	허지범
권세린	김수진	김혜수	박은진	송인근	유지희	이승훈	임다영	정다정	조호경	허찬범
권혜연	김아람	김혜영	박정훈	송인영	윤경화	이영아	임미영	정도희	주민경	홍석원
김규연	김아름	김효선	박준재	신민영	윤다미	이영주	임상은	정모아	진병남	홍세종
김나리	김예린	김희선	박찬서	신수현	윤문연	이유리	임승현	정세영	차소연	홍인정
김남희	김우정	노경실	박하나	신승혁	윤상원	이유정	임영현	정승윤	최수연	황선희
김다선	김은철	노유연	배성열	신지연	윤정원	이윤진	임예슬	정애리나	차승민	황성준
김대경	김은하	노혜수	배지혜	신지현	윤현영	이은미	임은혜	정유리	최영은	황지선
김동국	김재준	매튜 라오어	백송현	심우석	이경아	이은미	임은혜	정윤석	최유진	
김동은	김재준	로빈정	백승욱	안다원	이경하	이은영	임지선	정윤영	최윤선	
김리아	김정우	자스민 마천드	백지은	안미미	이계성	이종관	임진주	정재희	최은지	
김미래	김종승	민인영	변혜진	안주영	이계영	이종구	임진호	정주혜	최정욱	

후원기관

경기문화재단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우리흙쇼팽	하버드대학교*
경제인문사회연구원	대한민국 통일부	와이비엠/한국외국인학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경향신문	대한민국 특임장관실	월드퍼블릭오피니언*	한국관광공사
고려대학교	대한상공회의소	유민문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고려대학교 정외과 두뇌한국21 사업단	동북아역사재단	유진투자증권	한국노동연구원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동아시아재단	이슈투데이	한국리서치
국제개발연구센터*	매일경제	일본국제교류기금*	한국연구재단
글로벌스캔*	맥아더재단*	장경국제재단*	한국일보
나남출판	맨스필드재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한미협회
넥스트	미디어다음	조선일보	한샘
농심	북미고르바초프재단*	주원	한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삼성전자	주한미국대사관*	헨리루스재단*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삼양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대그룹
대한민국 국방부	서암학술재단	중앙선데이	현대자동차
대한민국 국회	서울방송	중앙일보	히말라야재단*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세계개발네트워크*	캘리포니아-샌디에고대학교*	
대한민국 대통령실	아산사회복지재단	평택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재단*	포스코	*해외기관

후원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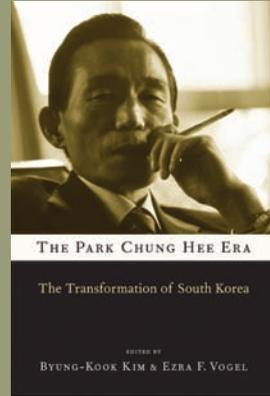
강국연	김예자	남윤호	성정은	윤우성	이종진	정주환	한신호
강문선	김용규	노익상	손대현	윤정림	이중구	정진영	한숙현
강은모	김용남	노호식	손명정	윤혜성	이지원	정해일	한승혜
강찬수	김용준	노환길	손 열	이곤수	이지희	조규완	한일봉
고병희	김용호	스티븐레이저	손재기	이규호	이진아	조동현	한정원
고혜선	김 원	류재희	송우엽	이 근	이창원	조상호	한지현
공성원	김 원	명정모	송지연	이근우	이창현	조은희	홍성원
공창위	김유상	문지욱	신관수	이기황	이충형	주 한	홍승복
곽준엽	김유주	민선식	신권식	이내영	이 항	조홍식	홍주희
구상환	김윤호	민선영	신동원	이동선	이해완	주미아	황성진
구윤정	김은숙	박경수	신동준	이동훈	이현옥	주영아	황 수
구준서	김은영	박근아	신보희	이마리	이현희	주원사우회	황정원
권세린	김인섭	박대균	신성수	이미혜	이혜민	주진균	
권지원	김재두	박동선	신성호	이민교	이홍구	지병근	
기의석	김 정	박병우	신영준	이민자	이홍규	지혜리	
김건호	김정은	박상민	신영환	이범주	이홍재	진선희	
김경순	김정은	박상용	신준희	이병인	이희정	진재욱	
김경지	김정하	박성만	심윤보	이봉재	임성빈	진지운	
김관용	김 준	박성은	안건영	이상호	임성학	차국린	
김국형	김준희	박수진	안용찬	이선주	임현모	채규호	
김기정	김지영	박용준	안중익	이성량	임현진	채성일	
김기준	김진아	박장호	안현정	이성량	임홍재	최 건	
김동건	김진영	박재시	양순화	이소영	장동우	최규남	
김만호	김진혁	박재준	양호실	이숙종	장재훈	최동규	
김미영	김창수	박진원	엄찬섭	이시연	장진호	최병규	
김병표	김하정	박찬근	여동찬	이여희	장희진	최병준	
김봉하	김한기	박찬선	여현정	이영주	전경수	최복대	
김상래	김현성	배기욱	우미경	이원종	전명선	최신림	
김성경	김현진	배위섭	원종숙	이윤미	전혜진	최신영	
김시연	김형재	백송현	원종애	이인옥	정기용	최영안	
김양규	김형준	백혜영	유승훈	이재섭	정랑호	최은혜	
김연옥	김형찬	서상민	유정석	이정민	정병갑	최종호	
김영구	김효신	서은숙	유창수	이정은	정석희	최철원	
김영미	김희동	서정원	육은경	이정호	정영국	하형일	
김영섭	김희정	서창식	윤상민	이정희	정영진	한금현	
김영원	김희진	선승훈	윤용집	이종수	정원철	한상철	

<p>2002 5월 개원 김병국 원장 취임 대통령의 성공 조건 연구패 널 구성</p>	<p>8월 노무현 정부 6개월 정책평가 여론조사 실시</p> <p>9월 동아시아의 평화, 발전, 지역 주의 국제학술회의 개최</p>	<p>논쟁 속의 미국 국제학술회 의 개최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출판</p>	<p>《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출판 제2기 EAI 펠로우 선정</p>	<p>10월 《변화하는 한국유권자》출판 《분권헌법》출판 국가대전략 강연회 개최</p>	<p>9월 제1회 한중 동북아안보대화 개최</p>	<p>제2회 한중 동북아안보대화 개최 2009년 연차보고서 발간</p>	<p>2011 1월 제6기 EAI 펠로우 선정</p>	
<p>6월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JEAS) 편집권 및 지 적 재산권 인수</p>	<p>12월 《정치개혁의 성공조건》출판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출판</p>	<p>7월 제1기 EAI 펠로우 선정 도라산 평화·인권 강연회 개최</p>	<p>9월 미디어다음 공동 외교안보 및 경제전문가 여론조사 실시 제1차 인프라비전 포럼 개최</p>	<p>11월 2007년 연차보고서 발간</p>	<p>12월 2007년 후원의 밤 개최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출판</p>	<p>11월 제2회 한미동맹 컨퍼런스 개최</p>	<p>12월 2009년 후원의 밤 개최</p>	<p>2월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출판</p>
<p>8월 정치사회 여론조사 실시 2002년 대통령선거 정책평가 여론조사 실시 박정희시대 연구패널 미국정 치학회 연례회의 발표</p>	<p>2004 2월 노무현 정부 1년 정책평가 여 론조사 실시</p> <p>3월 개발국가 이후의 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개최</p>	<p>8월 미국의 리더십과 국제여론 국제학술회의 개최 2020 중국 리스크 연구패널 구성</p>	<p>11월 코리아 컨센서스 연구패널 구성 시카고 국제문제 협회 공동 7 개국 대외인식 국제여론조사 실시 BBC·매일경제·한국리서치 공동 27개국 국제여론조사 실시</p>	<p>10월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출판</p>	<p>2008 1월 JEAS 사회과학 인용색인 등재</p>	<p>2009 1월 맥아더재단 아시아안보 이니 셔티브 핵심연구기관 선정 아시아안보연구소 설립 미래사회 중산층 변동 전망 과 대책 연구패널 구성</p>	<p>2010 1월 BBC·글로벌스캔·매일경제 공동 26개국 국제여론조사 실시</p>	<p>3월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출판</p>
<p>11월 린라이너 출판사와 JEAS 출 판 계약 2002년 대통령선거 정책평가 연구패널 구성</p>	<p>5월 《국회개혁의 성공조건》출판</p> <p>6월 여론브리핑 제1호 발간 국가안보 연구패널 구성 국가안보 연구패널 보고서 제1호 발간 제1차 한미디어얼로그 21 개최</p>	<p>9월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다양성 국제학술회의 개최</p>	<p>10월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여론조 사 실시</p>	<p>12월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출판</p>	<p>2월 소프트웨어 현자회의 및 강 연회 개최 중국 연구패널 구성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출판 이숙종 원장 취임</p>	<p>2월 한국리서치 공동 정기여론바 로미터 매월 여론조사 개시 이명박대통령 취임 1년 여론 조사 실시</p>	<p>2월 한미동맹 국내이해당사자의 영향력과 역할 국제학술회의 개최</p>	<p>4월 《The Park Chung Hee Era》출 판 및 출판기념회 개최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출판 《일본과 동아시아》출판</p>
<p>12월 한미관계 여론조사 실시 《대통령의 성공조건》출판</p>	<p>7월 시카고 국제문제 협회 공동 3개국 대외인식 여론조 사 실시</p>	<p>11월 BBC·매일경제·한국리서치 공동 33개국 국제여론조사 실시 분권헌법 연구패널 구성 2005년 연차보고서 발간 2005년 후원의 밤 개최</p>	<p>2007 1월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 국정치》출판</p>	<p>3월 월드 퍼블릭 오피니언·경향 신문 공동 국제인권 국제여 론조사 실시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출판</p>	<p>4월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출판</p>	<p>4월 제1차 스마트 토크 포럼 개최 홈페이지 개편</p>	<p>5월 EAI 논평 제1호 발간</p>	<p>5월 《북한 2032》 및 《세계화 제2 막》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 술도서 선정 미중관계공식성명일지 및 미 중관계브리핑 제1호 발간</p>
<p>2003 1월 《2002 대선평가와 노무현 정 부의 과제》출판</p>	<p>8월 한미동맹 로드맵 연구패널 구성 홈페이지 개편</p>	<p>12월 제1차 한국 대표 경제·경영 학자 여론조사 실시</p>	<p>2월 《2020 중국 리스크》출판</p>	<p>4월 월드 퍼블릭 오피니언·경향 신문 공동 국제인권 국제여 론조사 실시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출판</p>	<p>4월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출판</p>	<p>5월 제1차 스마트 토크 포럼 개최 홈페이지 개편</p>	<p>7월 아시아안보 이니셔티브 서울 연례회의 개최</p>	<p>6월 증문 홈페이지 개설 여론브리핑 제100호 발간</p>
<p>2월 홈페이지 개설 노무현 정부 정책과제 여론 조사 실시 국회의 성공조건 연구패널 구성 신탁스 아메리카나 국제학술 회의 개최</p>	<p>10월 지구넷21 창립</p>	<p>2006 4월 전국지방선거 패널리론조사 실시</p>	<p>6월 《2020 중국 리스크》출판</p>	<p>3월 월드 퍼블릭 오피니언·경향 신문 공동 국제인권 국제여 론조사 실시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출판</p>	<p>5월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출판</p>	<p>6월 제1차 스마트 토크 포럼 개최 홈페이지 개편</p>	<p>7월 아시아안보 이니셔티브 서울 연례회의 개최</p>	<p>7월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출판</p>
<p>3월 한국 경제개혁 사례 연구패 널 구성</p> <p>4월 노무현 정부 1년 정책평가 연 구패널 구성 북한핵대책 연구패널 구성</p>	<p>15월 지구넷21 창립</p>	<p>5월 제1차 글로벌 아카데미 개최 글로벌스캔·매일경제·한국 리서치 공동 33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여론조사 실시 한미동맹 로드맵 컨퍼런스 개최</p>	<p>4월 《2020 중국 리스크》출판</p>	<p>6월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 국정치》출판</p>	<p>5월 북한선진화 연구패널 구성 평택시 장기발전을 위한 협 의체 구축 연구패널 구성</p>	<p>7월 제1차 스마트 토크 포럼 개최 홈페이지 개편</p>	<p>8월 제1회 에픽 영 리더스 컨퍼런 스 개최</p>	<p>8월 《북한 2032》출판 및 북한 미 래전략 대토론회 개최 《세계화 제2막》출판 제3회 한중 동북아안보대화 개최</p>
<p>6월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 택》출판</p>	<p>4월 시민정치 연구패널 구성 한국 경제개혁 사례 연구 연 구보고서 발간</p>	<p>6월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출판 동아시아의 기업개혁과 체제 재편 국제학술회의 개최</p>	<p>7월 《2020 중국 리스크》출판</p>	<p>7월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연구패널 구성 교육 및 조기유학 7대도시 여 론조사 실시 제3기 EAI 펠로우 선정</p>	<p>6월 세계화 제2막 연구패널 구성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 았나?》출판</p>	<p>8월 평택국제학교 설립방안 연구 패널 구성 제1회 인턴홍커밍데이 개최</p>	<p>9월 국민의 국가정체성 여론조 사 실시</p>	<p>9월 《위기와 복합》출판 제1회 평택지식포럼 개최 동북아 안보포럼 개최</p>
<p>7월 제1차 글로벌 포럼 개최</p>	<p>5월 제1차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여론조사 실시</p>	<p>7월 교육 및 조기유학 연구패널 구성</p>	<p>8월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출판</p>	<p>8월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출판</p>	<p>7월 제1회 한미동맹 컨퍼런스 개최 제4기 EAI 펠로우 선정 《분권헌법》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p>	<p>8월 제1회 한미동맹 컨퍼런스 개최 제2회 한중 리더십 포럼 개최</p>	<p>11월 《북한 2032》출판 및 북한 미 래전략 대토론회 개최 《세계화 제2막》출판 제3회 한중 동북아안보대화 개최</p>	<p>11월 평택미래발전 대토론회 개최 한일안보협력회의 개최 삼각대화 서울 국제회의 개최 글로벌 코리아 워크샵 개최 제7기 EAI 펠로우 선정</p>

박정희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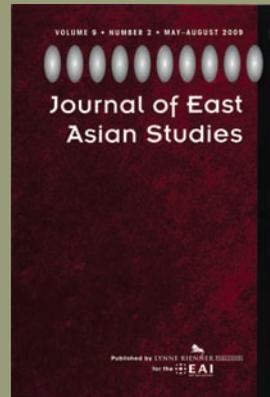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하버드대 출판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현대정치사의 장엄한 역동성을 세계 지식세계에 널리 알릴 수준 높은 영문단행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론적 깊이와 역사적 통찰을 동시에 겸비한 최상의 학술적 연구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비교정치의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결론은 EAI였습니다. 2011년 하버드대 출판부는 EAI의 연구패널을 이끈 김병국 고려대 교수와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명예교수가 공동으로 편집한 《박정희 시대》를 출간했습니다. 1997년에 그 연구가 시작된 《박정희 시대》는 40명이 넘는 국내외 연구자들이 약 13년 동안 중단없이 노력한 EAI의 역작 가운데 역작입니다. 총 23개의 장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기원, 정치과정, 경제 및 사회정책 그리고 국제관계를 재조명하여 대한민국이 어떻게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냈는지 그 궤적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톰슨이터사社는 생각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연구를 국가라는 소단위를 넘어서는 진정한 지역학으로 승화시킨 영문학술지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세계적 수준의 논문이 게재되는 영문저널을 탐색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동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 기준을 충족시키는 영문학술지 발행기관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결론은 EAI였습니다. 2008년 톰슨이터사는 한국의 민간독립연구기관이 발행하는 영문저널로는 최초로 EAI의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를 사회과학 인용색인의 등재지로 선정했습니다.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는 국내 연구기관이 발행하는 사회과학 인용색인 등재지 가운데 가장 높은 영향력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는 한국을 대표하는 동아시아 지역학 영문학술지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회과학 영문저널로 자리잡았습니다.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는 2006년부터 한국연구재단 국제학술지 발행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그 출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EAI 외교안보대전략시리즈

1.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 그물망국가 건설
2.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3.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4. 2020 중국 리스크 : 중국경제 중장기예측과 리스크분석
5.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
6. 동아시아 공동체 : 신화와 현실
7. 21세기 신동맹 : 냉전에서 복합으로
8. 북한 2032 :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9.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 글로벌 슈퍼파워의 가능성과 전망
10. 일본과 동아시아 :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11. 위기와 복합 :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12. 동아시아 국제정치 : 역사에서 이론으로

EAI 민주대전략시리즈

1. 대통령의 성공조건 I : 역할 · 권한 · 책임
2.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 회고와 제언
3.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4.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5. 국회의 성공조건 : 윤리와 정책
6.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7.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
8.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
9.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 영국 보수당의 역사
10. 세계화 제2막 :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EAI 여론분석시리즈

1.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 국민여론 · 소수정부 · 정책선택
2.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3.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 패널조사를 통해 본 5 · 31 지방선거
4.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5.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6.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7.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EAI 영문서적

1.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East Asia, Latin America, and the "New" Pax Americana*
2.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hifting Strategies*
3. *Party Politics in East Asia: Citizens, Elections, and Democratic Development*
4. *Collective Violence in Indonesia*
5.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6.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EAI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SCI 등재지) 2001-



이숙중 EAI 원장과 연구원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Knowledge-Net for a Better World